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도참고자료
희망의 대한민국 http://www.motie.go.kr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김진동과장(2110-4501), 엄길용사무관(2110-4504)
외교부 다자경제외교국 경제공동체과장(2100-7652)

박태호 WTO 사무총장 후보, 2차 라운드 탈락

- 멕시코, 브라질 후보 최종 라운드 진출 -

□ 4.16(화)~4.24(수)간 진행된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선호도 조사 2차 라운드 결과가 WTO 일반이사회를 통해 제네바 현지 시각 4.26(금) 15:00(우리 시각 4.26(금) 22:00)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. 비공식 확인된 바에 따르면, 우리나라 박태호 경제통상대사(前 통상교섭본부장)가 2차 라운드에서 탈락하여 최종 라운드 진출에 실패하였다.

○ 1차 라운드를 통과한 5명의 후보 중 박 대사를 포함, 인도네시아, 뉴질랜드 등 3명의 후보가 2차 라운드에서 탈락하였으며, 멕시코, 브라질 등 2명의 후보가 최종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다.

* 전체 입후보국(9개국) : 우리나라, 인도네시아, 요르단, 가나, 케냐, 코스타리카, 멕시코, 브라질, 뉴질랜드

□ 정부는 다자무역체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작년 12월말 박태호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로 지명한 바 있다.

○ 이후 박태호 대사는 금년 1월말부터 4월까지 주요 WTO 회원국 방문 등을 통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왔으며,

○ 정부도 재외공관을 통한 지지교섭, 외교부·산업통상자원부·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WTO 회원국 주요인사 접촉, 외교장관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박 대사의 캠페인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왔다.

□ 이러한 노력과 박 후보자의 국제통상분야 전문성 및 자질, 우리나라의 개방적 통상정책 기조 등이 WTO 회원국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,

○ 우리나라가 UN 사무총장과 같은 주요 국제기구 수장직을 이미 수임하고 있는 데 대한 견제 심리와 그동안 WTO 사무총장을 배출하지 못한 중남미 지역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등이 박 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.

□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향후 일정으로는 선출시한인 5월말까지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단일 후보를 선정, 컨센서스로 선출할 예정이다.

○ 신임 WTO 사무총장의 임기는 2013.9.1부터 4년이며, 1차례 연임이 가능하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엄길용 사무관(☎ 02-2110-450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